# 포스트 휴먼

1. 실현 가능성
2. 인간의 기계화 vs 기계의 인간화
3.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포스트 휴먼의 경계?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제대로 논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인류부터 포스트 휴먼으로 지칭할 것인지인, 포스트 휴먼의 경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허나,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포스트 휴먼이란?

인간을 뛰어넘는 신인류를 뜻하는 학문상의 용어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현 인류를 생명공학적으로 강화하여 마침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인류를 뜻한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미래의 발전된 생명기술을 통한 신인류의 형태와 특징을 알 방도가 없지만, 인간성과 비인간성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포스트 휴먼은 실현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단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를 만한 완전한 인류가 없기 때문이지, 계속해서 인류는 발전하고 있다. 향상된 과학 기술을 후대의 학생들이 배우고, 더 어려워진 난제를 함께 해결해가며 미래의 과학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한 과학 기술은 현 인류를 신인류, 완벽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또한, 인류는 이루고 싶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뤄내는 ‘숭고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은 100년 전만 해도 흔한 SF의 단골 요소였다. 그 책을 보고 자란 어린이는 과학자가 되어 소설을 실현시켰다. 우리가 지금 보는 SF에서는 나노기술을 통해 상처를 자가수복하고, 신체를 강화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나온다. 인류는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집착’을 할 것이다.

포스트 휴먼은 인간의 기계화인가 기계의 인간화인가?

(우선 포스트 휴먼의 길이 꼭 공학을 통한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육체를 생산하여 기존의 인간의 두뇌를 이식하여 영생을 누리는 방식의 포스트 휴먼도 존재한다. 허나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포스트 휴먼이 인간의 기계화냐 기계의 인간화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인간의 기계화이다. 기계의 인간화는 쉽게 말해 ‘특이점’이다\_특이점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의 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대조를 위해서 특이점의 개념을 가져옴. 이는 포스트 휴먼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이 현재까지의 인류를 넘어서는 지점을 의미한다. (여담이지만, 나는 특이점은 오지 않는다고 본다) 포스트 휴먼은 불완전성을 탈피한 완벽한 인류를 의미한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특이점 이후에 인공지능이 현인류를 지배하고 스스로를 신인류로 지칭한다면 신인류는 인간화한 기계를 의미할 것이다(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_인간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트 휴먼의 개념은 인간이 기계처럼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논제부터 잘못되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치 중 가장 중요한 천부인권은 인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기에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다. 허나,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에게도 이러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포스트 휴먼의 경계를 생략했기에 자세한 설명도 생략하겠다.) 완전한 포스트 휴먼의 경우,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다치지도, 죽지도 않는 완벽한 존재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니체가 죽인 신에게 동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반면 불완전한 포스트 휴먼, 아마 육체적으로만 완벽하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인류지만, 다치기도 죽기도 하는 신인류에게는 여전히 인권을 부여하여 그 존재의 의미를 지켜줘야 한다. 그렇기에 현 인류와 같이 고귀하고 숭고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곧 찾아올 포스트 휴먼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할 것인가? 단순히 완벽해지는 인류를 즐기고, 신체, 정신이라는 인간의 한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를 즐기면 된다. 단 시간 내에 일어날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생길 문제들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제때 수정해가면, 신인류의 자유는 현재의 상상을 아득히 넘어설 것이다.